학습목표

위령 성월을 맞아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한다.

준비물

- 디다케 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자료방→디다케 자료방)에 게재된 그림 파일(‘공동묘지’)을 내려 받는다.
- 성경 구절(1코린 15, 51-57)과 ‘위령 성월’ 기도를 학생 수만큼 복사한다.
- 빔프로젝터와 노트북 컴퓨터, 스크린(스크린 대신 교실의 흰 벽을 사용해도 된다.)
- 기념품(‘심화와 실천’ 때 상으로 줄 주일학교 기념품) 1개

들어가는 말(교안을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 수업 대상 : 본 교안은 초등부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수업 전 점검 사항 : 교사들은 반드시 수업 전, 노트북과 빔프로젝터가 잘 작동하는지, 수업에 사용할 그림이 영상으로 잘 비추어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그림과 미리 맞춰 봅니다.
- 진행 방식 : 본 수업은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질문한다거나 답변을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교사의 질문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들의 사고를 유도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시작 기도

예수님, 세상을 떠나신 조상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도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기쁘고 보람차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입

1) 그림에 대한 간단한 소개(그림을 화면으로 보여 주면서 설명한다.)

“이 그림은 지거 쾨더(Sieger Köder, 1925~) 신부님의 작품으로 ‘공동묘지’ 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신부님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미술 공부를 하셨고 초 · 중 ·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을 거쳐서 46세라는 늦은 나이에 신부님이 되셨답니다.

공동묘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묻혀 있는 장소예요. 그림에는 돌로 만들어진 서양식 무덤들이 많이 보이지요? 우리나라의 공동묘지와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지거 쾨더 신부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해야 하는 ‘죽음’ 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요.”

2)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질문(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않게 주의한다.)

① 무덤마다 서로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요? 십자가가 세워진 무덤은 어디에 있나요?

② 무덤 외에 어떤 것을 볼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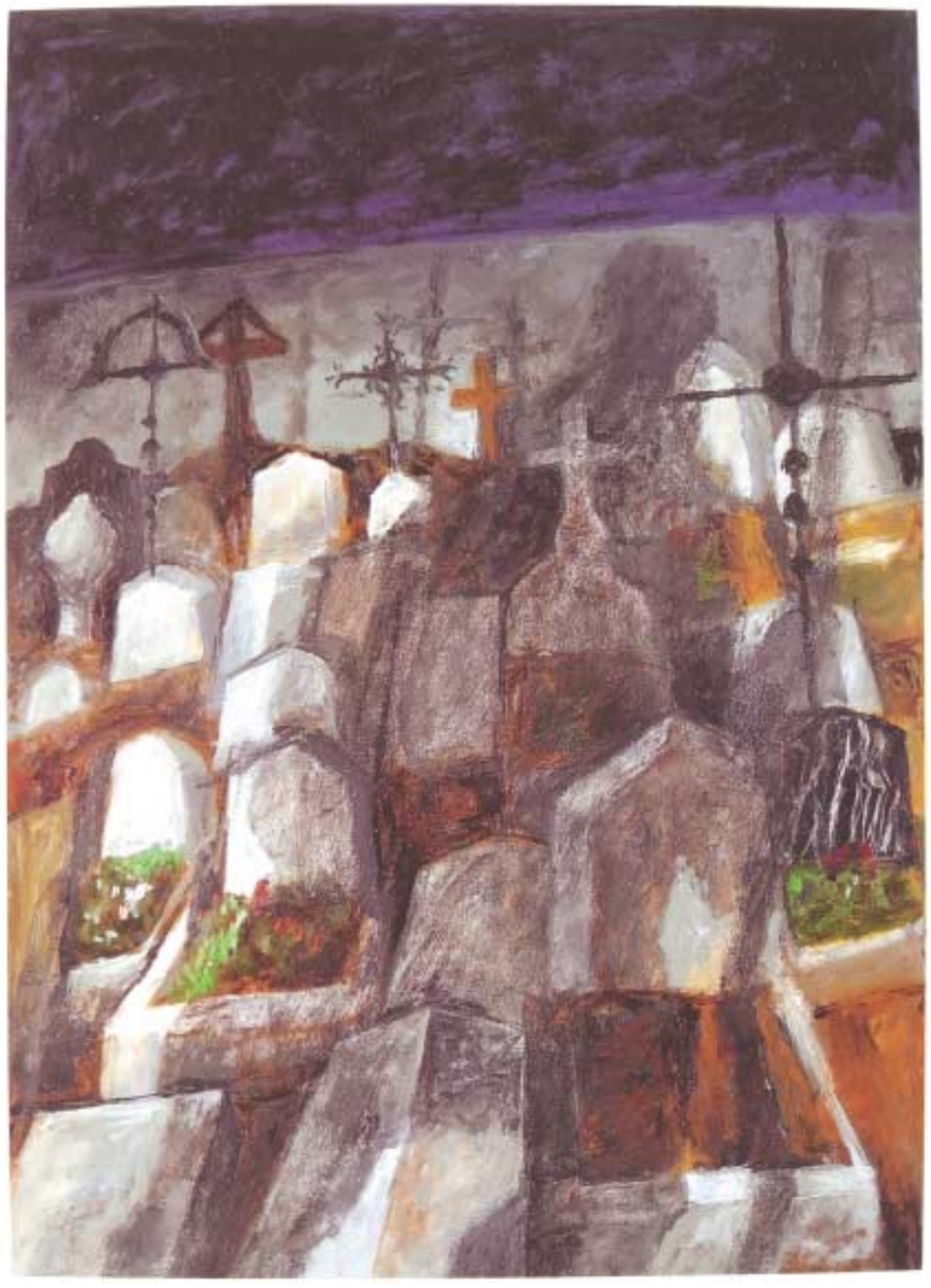
전개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1코린 15, 51-57을 읽어 보기로 해요.(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절씩 읽게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성경 구절을 다 읽으면, 다음 질문들을 통하여 그림을 설명한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변화된 새 모습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시작임을 말해 줘요. 또한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난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의미하는 구절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겠지요? 물론 우리는 부활을 맞이하려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거예요. 앞으로 맞이할 죽음이 두렵다고 느껴질 때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되었음을 떠올려 봐요.

자, 이제 그림을 살펴볼까요? 그림의 배경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동묘지’ 예요. 답답하다고 생각될 만큼 무덤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지요? 무덤과 무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마치 무덤들이 웅크리고 있는 듯하네요. 몇몇 무덤에는 화초나 꽃들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거 쾨더, 공동묘지, 캔버스에 유채

① “그림의 공간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묘비들이 한가득 어수선하게 놓여 있고 위쪽에는 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의 1/5 정도는 짙은 어둠이 가득한 하늘로 채워져 있어요.”

② “무덤과 하늘 사이에는 무엇이 있나요?”

“벽이 있지요? 이 벽은 언젠가 우리의 삶이 죽음이라는 벽에 가로막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③ “무덤들의 모양이 모두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어느 묘비에는 십자가 장식이 달려 있고, 어느 묘비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세워진 무덤은 그리스도인의 무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사람의 무덤이에요. 작가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④ “무덤에 묻히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걸까요?”

“묘지를 보면 무덤들 사이에 빈틈도 없고 생기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로지 적막감만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무덤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어떤 무덤에는 화초나 꽃들이 심어져 있지요? 이것은 ‘희망’을 의미한답니다. 지거 쾨더 신부님은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 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덤(죽음)이 인간의 끝 · 종착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계세요.”

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무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했듯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새 삶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이 지상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어디로 돌아갈 것 같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무덤의 십자가들이 하늘을 가리키는 화살표나 이정표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창조주 하느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고향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이기도 하시고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에게 죽음과 무덤은 마지막 단계가 아니랍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 인간의 처음이며 마지막(안식처)이세요.”

⑥ “그림에서 커다란 그림자를 찾아보세요. 발견했나요?”

“중앙에 커다란 그림자가 묘지를 덮고 있어요. 잘 살펴보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마치 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요. 공동묘지의 벽(죽음)에 이르기까지 드리운 큰 그림자는 마치 우리 자신도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듯해요. 다시 말해서 죽음은 먼저 간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림 속 그림자는 죽음이라는 것이 머지않아 내게도 닥쳐올 문제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⑦ “묘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묘비는 누구나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어요. 묘비가 크건 작건, 위대한 사람으

로 살았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든 그것은 죽음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손에 맡겨지니까요. 아마 묘비들이 소리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는 세월도 시간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란 한낱 입김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우리는 법석을 떨었습니다.' 이렇듯 죽은 뒤에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 맡겨지고, 요란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은 거품이 빠지듯 고요 속에 잠길 거예요."

심화와 실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볼까요? 누가 오늘 배운 내용을 그림을 보면서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볼 사람?(학생이 나와서 그림을 설명하면 준비해 둔 기념품을 준다. 그리고 학생이 이야기한 내용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수업을 정리한다.)

어떤 어린 친구가 엄마를 따라 성당 묘지에 갔어요. 그곳에서 그 친구는 신기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십자가들이 여기저기 잔뜩 서 있는 모습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 여기 봐요! 이곳은 십자가가 잘 자라는 곳인가 봐요! 십자가가 정말 많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어린이는 십자가가 땅에서 자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어린 친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십자가는 믿음의 토양 속에서 자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서 있는 무덤을 보면, 그 무덤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어요. 즉 죽음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게 돼요. 사실 여러분은 너무 어린 나이라 죽음이라는 말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친구를 하늘 나라로 떠나보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듯 죽음은 나이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어린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번 위령 성월에는 그분들이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며 기도를 많이 바치기로 해요."

마침 기도

'위령 성월' 기도문을 함께 바친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열심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디다케 홈페이지 'http://didache.eduseoul.or.kr→자료방→디다케 자료방' 에서 '위령 성월' 기도를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철_바르톨로메오
의정부교구 신부. 가톨릭대학교 교수.